

모집단위	종 목	문 제
디자인학부 무대미술전공 디지털콘텐츠 전공	기초디자인	<p>(문제은행 9번, 13번) 인쇄물로 제공된 사물들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, 화면에 자유롭게 구성·디자인하시오. **주의사항**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공된 사물 이외의 형상은 표현하지 말 것. 2. 제공된 사물의 색 이외는 사용하지 말 것. 3. 제공된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표현하는 것은 무방함. 4. 재료는 자유롭게 선택할 것. 5. 화지방향은 가로로만 할 것.
영화영상전공 (연기)	실기 고사 [지정 연기]	<p>소재</p> <p>“이혼 경력 있으면 어때? 유산 상속자라는데만 신경 쓰면 되는거야. 야! 인생은 냉정한 거래야. 원리는 간단한 거야. 얼굴 잘생기고(예쁘고) 돈 많은 부자가 쉽게 네 차지까지 올 줄 알았니? 이 집두 말이다, 결혼하자마자 니 앞으로 등기되는 거야 알아? 외동이니까 그러네 참. 싫음 그만둬라. 그렇잖아도 일류대학원 출신 하나 후보로 대기시켜 났어. 상대 외모가 못마땅하다. 그럼 돈 많은데 성형외과 가서 리모델링하면 되잖아. 너에게 지금 황금의 여신이 미소짓고 있는 셈이야. 기회를 놓치지 마. 이 바보야!”</p>
		<p>소재</p> <p>(피식) 사형 때리곤, 판사가 그러대요.. 기분이 어떠냐? 그랬죠. 기분 참 좋다. 남들이 술렁술렁 거리대요~? 그래서 말했죠. 첫째, 죽지 못해 살았는데, 나라에서 죽여준다니 좋고, 둘째, 태어나 관심 받아본 적 없었는데, 이렇게 관심 가져주니 좋다! 이 안에선, 죽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면 돼요. 안 그러면, 머리만 복잡해지거든요. 근데 그딴 건 왜 물어봅니까?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해라, 속죄해라 그런 말이나 하든가.. 대가리 아프게 뭐 하러 그딴 걸 궁금해 하는지 모르겠네.. (뜬금없이) 뭐 하나 알려 줄까요? 나 같은 놈이 속 얘기하기 쥔 좋은 놈입니다. 왜냐? 비밀을 죽음까지 가져가거든요. 나 같은 놈 찾아오려면, 뭐 하나 얻어 가는 게 있어야죠...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? 아님 말고요..(재밌다는 듯이 웃는다.)</p>

모집단위	종 목	문 제
연극전공 (연기)	실기 고사 [화술]	<p>소재</p> <p>자네가 내 아랫사람으로 일한 날들을 잘 알고 있네. 어쩌면 분초까지도. 나는 자네에게 아주 오랫동안 이성이라는 재갈을 물려왔네. 입이 찢어져 피가 나도록 말이야. 자네는 원래부터 나약한 사람이야. 그래서 누가 자네에게 교활하게 어떤 주장을 툭 던지면 자네는 그걸 허겁지겁 받아먹기 바쁘단 말이지, 자제를 못 해. 자네는 본성에 맞게 좀 더 높은 차원의 것에 군침을 삼켜야 해. 높은 차원의 것은 아주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지. 그러니 이제 자네가 나로부터 벗어날 때가 온 거야. 자넨 저급한 충동을, 자네의 두툼한 발바닥에 인간적인 모습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진실한 본능을 곧 다시 따를 수 있을걸세.</p>
		<p>소재</p> <p>무대 위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난 불안해. 사람들 앞에만 서면 난 나약해지고 무방비한 상태가 되고 말지. 공포와 희열의 짜릿함을 맛보고 싶어. 불꽃처럼 튀기는 대사, 정열을 폭발시키는 말들, 분노를 일으키는 순간들을 갖고 싶단 말야. 칼날처럼 예리한 말들, 햇불처럼 타오르는 말들, 가슴을 꽉 채울 수 있는 말들을 그들에게 내뱉고 싶어.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말을 던져 주겠어. 꽃처럼 아름다운 말들을, 희망과 환희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말들을, 박수갈채를 보내고, 꽃으로 날 파문겠지. 자기들 어깨 위에 날 올려놓고 환호성을 칠거야. 그 순간, 그들 위에서 흔들거릴 그 순간 내 삶은 거기 있는 거야.</p>
디지털만화 영상전공	만화 능력 테스트	<p>소재</p> <p>아래의 상황을 기승전결의 칸만화로 구성하시오.</p> <p>서기2150년 서울에 사는 주인공 ‘나’는 집안의 고장난 도우미 로봇의 하드웨어를 새로 교체 하러 간다. 돈이 없어 남이 썼던 저렴한 하드웨어를 재활용하자 미래를 예견하기 시작한다.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!</p>